

유영국 추상미술의 세계...美서 전집으로 출간

December 03, 2020 | 전지현 기자

page 1 of 1

유영국 추상미술의 세계...美서 전집으로 출간

세계 미술거장 소개하는 리졸리社, 한국작가론 처음



세계적인 예술 서적 출판사 리졸리가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‘색채의 마술사’ 유영국(1916~2002)의 영문 모노그래프(전집) ‘유영국: 정수(Quintessence)’를 출간했다. 수년간 준비 끝에 미공개작부터 대표 작품까지 유영국의 추상미술 세계를 360쪽에 망라하는 책이다. 가격은 16만원(135달러)이다. 리졸리는 로이 리히텐슈타인(1923~1997), 에드 루샤(83), 리처드 세라(81), 프랜시스 베이컨(1909~1992) 등 미술 거장들의 신간을 펴내는 출판사다.

이번에 나온 ‘유영국: 정수’는 한국 자연을 점, 선, 면, 색의 기본 조형 요소로 환원해 김환기와 더불어 한국 추상미술 선두주자로 평가받아온 유영국을

전 세계에 알릴 기회로 평가받는다. 편집자 로사 마리아 팔보는 서문을 통해 “자연은 부인할 여지없이 그에게 영감이 되었으며, 경이로움과 겸손함에 기반한 이 특별한 유대는 그가 살면서 경험한 파괴와 비극을 향한 갈망에 맞서는 이로운 해독제 역할을 해주었다”고 썼다.

미국 미니애폴리스 미술관 현대미술 큐레이터인 가브리엘 리더는 이 책에 수록된 글 ‘자연, 그 안과 밖’을 통해 유영국이 일본 아방가르드(전위예술)와 한국 앵포르멜(제2차 세계대전 후 뜨거운 추상화)을 거쳐 온전한 기하학적 추상세계를 일구기까지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다뤘다.

2016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작가 탄생 100주년 기념전 ‘유영국, 절대

와 자유’를 기획한 김인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는 독자적인 추상회화를 확립해가는 작가의 여정을 일제강점기 대한민국과 일본의 역사적·미술사적 맥락에서 조명했다. 바르토메우 마리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유영국의 작업을 통해 한국 고유 아방가르드의 출범을 근대사적 맥락에서 사유했다.

1916년 울진에서 태어난 유영국은 1930년대 후반 절대적인 추상을 통해 예술적 이상향을 지향하고자 도쿄 유학길에 올랐다. 자유미술가협회, 독립미술협회 등 그룹 활동을 통해 일본 전위예술 대표 작가·비평가들과 교류하고 전시를 개최했다.

동시에 3차원 공간을 넘나드는 매체인 릴리프(부조)와 사진의 조형 가능성을 탐구했다. 귀국 후에는 신사실파(1948년 창립), 모던아트운동(1956년 창립) 등 그룹 활동에 주력했다.

전지현 기자